

## 육계 · 계란 자조금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

윤 봉 중 축산신문사 회장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아무런 발생없이 무사히 넘어갔다. 지난 2003년 11월 국내에 발생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 양계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휩쓸고 지나간 쓰라린 아픔을 겪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5년 9월 양계업계는 또 다시 조류인플루엔자의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번에는 국내에 발생되지도 않은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 양계업계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동향은 물론 사람감염 사례 등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가금 산물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가져다주었고 소비는 크게 위축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2003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양계업계는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닭고기와 계란을 거리로 들고 나와 시식행사를 개최하는가 하면 20억 원의 AI안심보험에 가입했고 TV광고까지 실시하면서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양계업계의 소비 홍보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섭취해서는 절대 감염되지 않을뿐더러 국내 방역 체계상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된 가금 산물은 절대 유통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소비를 되살리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계업계는 적지 않은 돈을 써야만 했다.

소비촉진을 위해 사용한 홍보비는 양계업계가 쓴 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닭고기의 실질 하락률은 2003년에는 28.7%, 2005년은 19.6%인 것으로 분석했다.

2005년 총 5억7천7백53만4천수가 도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의 가격하락은 양계업계의 피해가 얼마였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계란까지 포함시킨다면 직·간접적인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이르며 조류인플루엔자가 양계업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게 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관계자들이 이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의 철새들이 멸종되지 않고 가금 산물의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지 않는 한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는 이제 매년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가 도래하면 연례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올해 10월이 되면 또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시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가금 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며 홍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자조금이다.

그러나 양계업계는 지금 앞으로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얼마큼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육계자조금은 지난해 10월 대의원을 선출해 놓고 아직까지 언제부터 자조금을 거출할 것인지도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며 업계 내부의 갈등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채 담보상태에 빠져 있다.

계란자조금은 더욱 답답하다.

현행 자조금법으로는 계란자조금의 조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계란자조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채란업계는 이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함께 올해 가금업계를 강타할 한미 FTA가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닭고기 최대 수입국으로 국내 닭고기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닭고기 시장이 다른 분야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규모를 생각하고 곧 붙어 닥칠 한미 FTA 태풍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국내산 가금 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홍보이며 이를 위한 자조금을 조속히 조성하는 것이 양계업계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전 업계가 나서야 할 시기이다. **양계**